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18.

발 의 자 : 최기상 · 임미애 · 정성호
김동아 · 김정호 · 박희승
김성환 · 박상혁 · 김태선
이수진 · 박 정 · 김남희
백승아 · 서영석 · 문정복
민병덕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,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· 직계친족 · 형제자매 · 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· 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.

하지만 열람 · 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 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, 현 제도는 법원의 열람 · 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피해자는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및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·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 시 법원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4조의4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4조의4제1항 중 “재판장에게”를 “법원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재판장”을 “법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판장”을 “법원”으로, “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”를 “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재판장”을 “법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법원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⑦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판기록의 열람·등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) 제294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기록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한 경우부터

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·등사)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),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·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<u>재판장에게</u> 신청할 수 있다.	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·등사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원에</u> -----.
② <u>재판장</u> 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	② <u>법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<u>재판장</u> 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, 심리의 상황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<u>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</u>	③ <u>법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</u>

<p><u>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소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</u>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<u>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</u></p>	<p><u>허가할 수 있다</u></p> <p>④ <u>법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<u>법원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 <p>⑦ <u>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</u></p>
---	--